

다른 사람의 모습에서 ‘나’ 찾으니 괴로운거죠

트위터 스타 해민 스님의 안국선원 법회 ‘인기’ ‘질투’ ‘콤플렉스’ 등 재밌는 주제에 대중 열광

“키가 작아요” “학벌이 좋지 않아요” “날씬하지 않아요” “유머감각이 부족해요” “영어를 못해요” “패션감각이 부족해요”

스님은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으로 옮겨 맡까지 한국에 머물 예정이다.

이어나 기자

늦여름의 주말 오후. 안국선원 법당에 120여 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푹글게 앉아 팀을 이루어 ‘콤플렉스 게임’을 하고 있다. 각 팀별로 콤플렉스를 한 가지씩 이야기 하다 걸치는 팀이 탈락하는 게임이다. 젊은 이들은 게임에서 지지 않으려고 갖가지 콤플렉스들을 쏟아낸다. 참가자들은 서로의 콤플렉스를 나누면서 긴장을 푼 뒤 콤플렉스가 왜 생기는지, 또 어떻게 극복하는지 서로의 의견을 공유했다.

지도 법사 해민 스님이 콤플렉스의 원인에 대해 설명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남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내면에서 나를 찾으려는 게 아니라 나와 남을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에 비친 모습을 보고 나를 찾으려고 하니 열등감을 느낍니다. 여러분이 부러워하는 사람 만나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도 콤플렉스가 있습니다. 다 똑같은 사람이예요.”

청년들은 해민 스님의 법문을 들으며 위로를 받기도 하고 재밌는 이야기에 ‘뿅’ 터지기도 한다.

토요일마다 열리는 안국선원(원장 수불) 청년법회가 인기다. 3만 8000여 명의 트위터 팔로워를 거느린 트위터 스타 해민 스님이 20~30대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오후 5시부터 ‘집착’ ‘질투’ ‘서운함’ ‘마음과 명상’ 등 듣기만 해도 솔깃해지는 흥미로운 주제로 법문을 하기 때문이다.

해민 스님은 지난 해 하버드대 출신 엘리트 스님으로 소개돼 국내 언론을 떠들썩하게 했다.

영화감독을 꿈꾸던 스님은 미국으로 영화공부를 하러 갔다가 우연히 UC버클리에 서 만난 티베트 린포체 스님의 영향으로 종교학을 전공했다. 그리고 세계 명문대학으로 꼽히는 하버드대 재학 시절, 갑자기 출가했다. “성공을 위해 경쟁만 하다가 죽음을 맞게 되면 얼마나 허탈할까”라는 생각이 불현 듯 들었기 때문이었다.

현재 미국 매사추세츠주 햄프셔에서 종교학 교수로 재직중인 해민 스님은 안식년을 맞아 국내에 머물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6월에 리차드 기어가 한 국을 찾았을 때는 통역을 도맡았으며 매주 안국선원에서는 젊은 불자들을 대상으로 영어 법회, 한국어 법회를 진행하고 있다.

어떻게 법회를 준비하게 됐나
한국에는 20~30대 초반 불자들을 위한 법회가 많지 않다. 10년 전 미국에서 절을 열심히 다니던 친구를 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됐다. 그 친구가 한국에서 불교학회를 찾아 활동하려고 하다 마땅히 갈 데가 없어 포기하고 가톨릭으로 개종했다. 나에게도 굉장한 쇼크였다. 청년들끼리 향유할 수 있는 불교문화가 부족하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끼다가 한국에 있을 동안이라도 청년들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법회를 준비했다.

안국선원에서 진행하는 청년법회에 대해 들려 달라

처음에는 안국선원 청년범우들을 위주로 법회를 시작했다. 그러나 내 트위터에 법회를 한다고 글을 올렸는데 처음에는 40여 명이었던 참석자들이 지금은 120여 명이 넘었다. 안국선원에서는 ‘불교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로 불교를 소개하는 정도로 진행하고 있다. 젊은 사람들은 불교를 근엄하고 어렵고 고리타분하고 어머니, 할머니들만 다니는 종교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고정관념을 뛰어넘어 심리학적 내용으로 접근해 그들이 공감할 수 있는 언어로 체험할 수 있도록 꾸몄다. 미국 대학교에서는 소그룹으로 나뉘어 토론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한다. 미국학생들에게 반응이 좋았던 불교 심리학을 주제로 안국선원에 적용해봤다.

트위터 팔로워만 3만 8000여 명이다. 이들에게 좋은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있다. 에피소드가 있다면

다양한 사람들이 DM(다이렉트 메시지)을 보내온다. ‘아버지가 너무 편찮으시다. 기도해달라’ ‘아이가 유산됐다. 어떡하냐’ 등 실질적인 고민을 물어오면 답할 수 있는 한 답변들을 해준다.

트위터를 통해 루시드폴의 조윤석씨랑 같이 차를 마시기도 했다. 팔로워였던 조윤석씨가 “시간이 있으면 안국선원에 나와 청년프로그램에 참석했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내왔다. 또 연예인 홍석천·윤복희씨를 비롯해 신경숙 작가, 홍정욱 국회의원 등 다양한 사람들이 메시지를 보내준다. 유



해민 스님은... 캘리포니아 주립대 버클리에서 종교학을 전공하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비교종교학 석사를 수학하던 중 출가를 결심, 2000년 봄에 해인사에서 사미계를 받으면서 조계종 승려가 됐다. 그 후 프린스턴 대학원에서 박사 졸업 후 2007년부터 미 동북부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햄프셔 대학교에서 정식 교수로 발령 받아 교편을 잡고 있다.

명인들과 이야기를 주고 받는 것이 신기하고 재밌다.

(해민 스님의 트위터 주소는 twitter.com/haeminsunim 이다.)

한국에서 무엇을 하고 있나

미국서 3년간 수업하고 안식년을 맞아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소에서 ‘한국 현대 간화선’을 공부하고 있다. 최근 동국대에서 진행한 국제간화선 세미나에서 통역을 맡았다. 2010년 처음 열린 국제 간화선 세미나에서는 주제 발표를 했는데 올해는 행사 일정을 챙기는 역할을 했다. 2회 연속 세미나에 참여해보니 차이가 느껴지더라. 올해 간화선 세미나에서 외국학자들을 대상으로 백담사에서 간화선 체험을 하게 했던 질문의 수준이 달랐다. 작년에는 이론

적인 질문들만 했는데 올해는 ‘스스로 번뇌를 어떻게 제거하느냐’ 등 실질적인 질문을 하더라. 수행을 하고 안하고의 차이가 엄청나다는걸 느꼈다.

불교와의 인연은 어떻게 맺게 됐는지

고등학교 때부터 삶의 궁극적 질문을 갖고 있었다. 지나가는 스님을 붙들고 이것저것 묻기도 하고 길에서 만난 불문교(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교회) 선교사에게 질문을 퍼붓기도 하고, 대학생 때는 요가 스승을 찾아 인도의 정신적 구루들을 찾아가기도 했고 달라이 라마도 진경했다. 그래도 풀리지 않던 차에 UC버클리 대학을 다니면서 3학년 때 종교학으로 전공을 정했다. 기숙사에서 생활하다가 나와서 한국 절에서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나와 너무



안국선원 주말 청년법회에 참석한 젊은이들이 ‘콤플렉스’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잘 맞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은사 스님인 휘광 스님(뉴욕 불광선원)을 만나 출가하게 됐다.

한국 청년들에게 어떻게 하면 불교의 매력을 알릴 수 있을까

불교는 상당히 매력적인 종교다. 하지만 사람들이 현대적 언어로 불교를 풀어내지 못한다. 미국은 탈위계질서문화이다. 내가 스님이기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아픔, 괴로움을 스스로 없애고 그들 앞에 내놓았을 때 상대편도 공감하고 법회에 온다. 또 한국의 주지 스님들이 젊은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한다. 스님들이 젊은 불자들이 눈높이를 맞춰야 한다. 교회를 가 보면 청년들만의 놀이문화가 발달돼 있다. 그들은 일요일 하루 종일 교회에 있다. 재밌기 때문이다. 청년들이 편하게 자기네들끼리 불교문화를 만들 수 있는 시간이나 공간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든다.

미국에서는 어떤 강의를 했다

〈선불교 개론〉 〈불교심리학〉 등 내가 공부하고 싶었던 것들을 학생들과 함께 공부한다. 미국에서는 불교 과목이 한번쯤은 듣고 싶은 과목으로 인식된다. 서양에서는 불교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종교로 인식되며 교육을 많이 받은 엘리트들이 관심을 갖는 종교라고 인식되기 때문이다. 자연주의 사상가였던 랄프 왈도 에머슨, 헨리 데이비드 소로 등 지적인 사람들을 통해 불교가 서구에 소개되다 보니 불교 관련 서적을 사보는 사람들도 지적인 사람들이 많았다.

한때 영화인을 꿈꿨던 스님으로서 불자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영화가 있다면
국내에서 10월에 개봉하는 테렌스 맬릭 감독, 브래드 피트 주연의 ‘트리오브라이프’를 추천한다. 종교적인 메시지가 강하다. 이외에 종교학자로서 좋아하는 영화들은 많다. 브레이크 더 웨이브(테마크), 밀양

(한국), 중앙역(브라질), 유산(테마크), 조남인 휘광 스님(뉴욕 불광선원)을 만나 출가하게 됐다.

영어,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 간단한 팀이라도 소개해달라

고등학교 1학년 때 경복궁에서 대화를 나누는 계기가 영어실력을 늘리는 데 큰 도움이 됐다. 20대 미국인 관광객 케빈과 대화를 나눈 뒤 나는 종종 주말이 되면 경복궁, 인사동 등을 찾은 버릇이 생겼다.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한마디라도 영어로 말을 걸어보고 싶어하였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 말을 거는 것 자체가 쑥스럽겠지만 그 쑥스러움은 5분 정도 지나면 잊혀진다. 외국인들과 심도 있는 교류를 나누려면 그 나라의 문화, 역사, 지리, 시사적 이슈 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외국어를 사용하는 나라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쌓여야 지 단어를 달달 외운다고 실력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요즘 한국의 20·30대를 사이에서는 치열해진 생존 경쟁을 빚대어 ‘삼포세대’라는 신조어가 회자되고 있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연애와 결혼 및 출산을 포기한 젊은 층을 뜻하는 말이다. 이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남들과 똑같은 성공의 잣대를 가지고 그것을 기준으로 본인의 삶을 설계하지 말라. 나만의 빛깔과 열정을 내 안에서 찾도록 노력하자. 남을 따라가면서 자꾸 남과 나를 비교하거나 뒤쳐진 느낌을 받게 되는데 그러지 말라. 나만의 의미있는 삶을 계획해 무의식적으로 따라가기만 하는 내가 아닌 내 삶의 진정한 주인공이 되도록 노력하라.

[문화관광부 허가 제 2010-9호]

사단법인 대원불교 조계종 종도모집



석가여래부촉법 제 77세 청봉 석정산 대종사



종 정 청봉 석정산 (종정실 사서실장 : 박선혜화) (종정실 경호실장 : 석법진)
명예종정 명진 석범운

원로회회장 석흥섭	원로부회장 석무공	원로부회장 석만월	승무원장 석원정	종회의장 석법일	기획원장 석법상	호계원장 석월오	감사원장 석동원
총무원 총무원장 석혜오	호법원 호법원장 석원명	감찰원 감찰원장 석다우	문화원 문화원장 석지명	사정원 사정원장 석현중	포교원 포교원장 석혜운	교육원 교육원장 석무겸	
총무부장 석능현	호법부장 석대원	감찰부장 석윤오	문화부장 석혜주	사정부장 석지혜	포교부장 석혜통	부원장 석운오	
재무부장 석도현						부원장 석대명	
행사부장 석명오						부원장 석법오	
의전부장 석근홍						1 국장 석대덕	
						2 국장 석해인	

교구총무원
울산총무원장 석현중
김해총무원장 석정해
거제총무원장 석덕은
대구총무원장 석청명
창원총무원장 석범일
진주총무원장 석덕오
전북총무원장 석실산
전남총무원장 석법진
마산총무원장 석법경

비구니원
원로회장 석효각
원장 석청명
부원장 석광명
석정은 석능현 석도현
석혜안 석혜운 석수진
석수해 석해인 석지현
석효선 석해연

중앙위원회
중앙행정위원장 차정호
중앙운영위원장 손연자(대신행)
중앙미술위원장 엄태일
중앙정책위원장 박만석
중앙문화위원장 박무근
전국신도회회장 노세주

1) 입중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 총본산 : 경남 양산시 주전동 656번지 불광사 ☎ 010-3565-2462, 070-4187-4747
- ☎ 055364-4747 / FAX : 055364-4849

◆ 입중 안내 ◆

2) 입중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법사증,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 ※ 법률법률 교육대학 9기생 모집
- ※ 계좌번호 : 농협 351-0227-1551-63 / 예금주 : (사) 대원불교 조계종

직지인심 견성성불을 체득하고 대승사상 지장보살행을 용으로 하며 상구보리 화회중생을 중지로 삼고 있는 (사)대원불교 조계종 총본산 불광사에서는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 나갈 사찰 및 종도님을 모집합니다

* 유사 대원불교조계종이 '진주'에 있어서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